

# 기업의 가치는 사람사랑 문화사랑에서

우림건설 심영섭 대표



우림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매달 책 한 권과 함께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우림건설 심영섭(47) 대표가 직접 쓴 책 추천사다.

“책을 고를 때는 될 수 있으면 장르나 주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고, 20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직원들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책을 고르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몰입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책을 받은 우림건설의 임직원들은 심 대표와 마찬가지로 책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옮긴다. 심 대표는 이를 꼼꼼히 읽고 간부회의에서 그 중 의미 있는 것을 골라 발표하기도 한다.

심 대표가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우림건설 직원은 700명이 넘는다. 그러다보니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다. 또 업종 특성상 사업장이 전국 각 지역에 퍼져 있어 조직 내 소통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심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이었던 것이다.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일을 도와 드리며 자연스럽게 건설업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학창시절에는 문예부장을 하는 등

문학청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좋은 작품을 함께 읽는 데서 행복을 느꼈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거칠고 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만들어야 집도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림건설은 ‘사람사랑과 문화사랑’이라는 주제의 사회 봉사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사람사랑은 장애인, 빈민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음이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빈민여성 장학사업 지원,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 빈민아동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사랑은 기초예술과 전문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남도민요보존사업,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지원사업, 순수연극 지원사업, 우림평키하우스나 우림청담씨어터 등 공연장을 만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 외에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매월 2,500여 권씩 연간 3만 권의 책을 각계에 나눌 계획이다. 또한 주택 준공 시 시비詩碑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30여 개의 시비를 세울 예정이다.

“건강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건강한 기업 이미지는 문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긴 안목을 갖춘다면 문화지원은 단지 문화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림건설을 문화기업으로 인식한다.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메세나’가 우림건설의 기업 가치를 높여놓은 것이다. “기업마다 성장환경과 기업활동 영역이 다르듯이 자신들에게 맞는 분야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 그 과실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심 대표의 확신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풍요로워지는 세상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류 정신의 거처인 출판문화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는 아파트 한 채 더 짓는 것에 비할 수 없는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

취재 | 신동섭 기자